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 나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성차별이 무척 심한 시어머니 밑에서 혹독한 시집살이를 경험하게 됐다.

내가 가진 며느리라는 이름 안에는 가부장적 질서에 맞춘 무언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강요가 담겨 있었다. 그렇기에 나중에 며느리를 맞게 되면 나는 절대 아들과 며느리를 차별하지 않고 시집살이도 시키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었다.

실제 세월이 흘러 두 명의 며느리들을 맞은 후에는 서로를 위해 생일을 챙기고 취미생활도 함께 하는 등 교감을 나누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오랜 시간 굳어진 성 고정관념에 따라 나 역시 차별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일이 있었다.

약 10여 년 전 추석 때였다. 며느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전을 부치고 있는데 큰 아들이 다가와 “어머니,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라고 물었다. 곁에 있던 작은 아들도 덩달아서 “우리도 도울게요. 명절 음식 얼른 끝내고, 맛있는 거라도 사먹으러 나가요!” 라며 거들었다.

나는 “아휴, 남자들이 무슨 음식을 하니, 너희들은 해본 적도 없으면서. 음식은 여자들이 만들 테니, 너희들은 방에 들어가 좀 쉬고 있어라!” 라며 아들 둘을 방으로 들여보냈다.

얼마 후 방에서 쉬던 작은 아들이 “어머니, 뭐 마실 것 좀 없어요?” 라며 부엌으로 왔는데, 나는 “그래, 챙겨 줄 테니 소파에 앉아 있어.” 라고 말한 후 작은 며느리에게 음료를 챙겨주라고 시켰다.

그렇게 명절을 다 치른 후 딸아이와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고부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TV를 보던 나는 딸아이를 향해 “아휴, 올해 명절도 잘 지나갔네. 다른 집들은 명절 때면 고부갈등이 심해진다는데, 그래도 엄마 정도면 아들, 며느리 차별 없이 개인 시어머니 아니니?” 라고 물었다.

그러자 명절 기간 동안 일련의 상황들을 모두 지켜본 딸아이가 내게 “솔직히 엄마는 의식을 못한 것 같은데, 오빠들은 방에서 쉬게 하고 나와 새언니들한테만 음식을 만들게 했잖아! 마실 것도 새언니한테 챙기라고 하고. 맞벌이하느라 힘든 건 다 똑같은데, 명절 때 여자들한테만 일시키는 거 그게 바로 성차별이야!”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다소 충격을 받은 나는 “그거야, 너희 오빠들이 한 번도 음식을 안 해봤으니까 안 시킨 거지.” 라고 항변하듯 말했고, 딸아이는 “맞아, 안 해봤으니까 잘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는 건데, 엄마는 무조건 못하게 하잖아. 새언니들 입장에서는 분명한 차별이라고 느낄만하지.” 라고 답변했다.

딸아이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의도치 않게 내 안에 잠재돼 있던 성 고정관념으로 아들과 며느리, 아들과 딸을 차별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명절이 되고 보니 불편한 진실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 후부터 나는 고정된 성역할 구분 없이 장보기와 음식 준비, 설거지, 청소 등 명절 가사 노동을 온가족이 함께해 서로 배려하는 평등한 명절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자식들이 평등한 가정을 꾸리고, 손주들이 양성평등을 경험하기에 더없이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정 내에 남아있는 가부장적 문화를 개선하자, 누구도 성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성 평등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제 우리 집에서는 더 이상 ‘남자니까’, 혹은 ‘여자니까’ 라는 등의 고리타분한 성 고정관념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남녀 간의 정해진 틀 없이 서로를 배려하는 행복한 가정 분위기를 보니, 50여 년 전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켜냈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차오른다.